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인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73-5254 (사무실) 77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3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사그라져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든든하리라 믿었던 삶의 터전이 속절없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질병의 고통과 좌절의 아픔, 불현듯 찾아오는 공허감과 무의미의 심연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은 소금쩍이 일어나 아무 것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의지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의 뜻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을 고양시키지 못하는 헛된 말과 소문에 매달리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자의 설렘과 기대로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약4:8
♠ 교 독 문	3. 시편4편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대표기도	I. 박정숙 선생 II. 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423. 나의 믿음 약할 때
성경봉독	I. 마6:1
	II. 마8:5-13
	백혜숙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보호색
	II. 절대 신뢰
	최인환 전도사
	김기석 목 사
거둠기도	다같이

헌신의 찬송 344.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자와 같은 용기로 불의와 싸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돌보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 이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안고 나아갑니다. 굵은 것은 곧게 하고, 막힌 것은 뚫어 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그친 자리에서 주님의 희망이 시작됨을 믿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면 어디든 이르러 평화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임원 교육	인도: 장영숙 전도사
강의 : 김재흥 목사/장영숙 전도사	기도 : 최인환 전도사

다음 주 에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임보람 선생 조병무 장로	인도자 김인걸 권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박창운 고사일 송양진 허정윤 최영선
	헌금위원	김철수 이인웅 김근종 곽혜자 배상순 문인옥

생명의 신성함과 인간의 동등성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 자신과 세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인생에 궁극적인 의미도 없고, 세계는 언제나 무질서할 것이며,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을 앞질러야 하고 그래서 앞지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세계와 더불어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는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인생에는 목적이 있으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평화의 하나님 이시고 그분이 지으신 세계를 일구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삶은 인류 구원에 공헌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고자 한다면 평화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였던 마틴 루터 킹의 '사랑의 공동체'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평화로운 삶은 우리 모두가 동등한 존재라는 지극히 단순하고 기본적인 진실에서 출발한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우리 모두 한 분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요 자매들이다. 이는 관념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이다. 모든 생명은 신성하다.

누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자기 누이나 형제를 죽인 것과 다름없다. 모든 생명의 근본이 하나임을 참으로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죽일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핵무기를 만들거나 해마다 수백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게 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폭력 문화는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때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국외자라고, 적이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우겨댄다. 그래서 그들은 변두리로 밀려나고 따돌림을 받아야 한다. 죽일 수도 있고, 또 죽이려 한다. 일단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들을 죽일 수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게 된다. (.....)

우리를 둘러싼 문화는,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내다본다는 것이 한낱 꿈에 지나지 않으며,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될 수 있는 한 돈을 모으고 권력을 움켜잡아 그것으로 남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가르친다.

포용의 문화 대신 분열의 문화, 정의의 문화 대신 불의의 문화, 자비와 용서의 문화 대신 보복과 양갈음의 문화, 비폭력의 문화 대신 폭력의 문화, 평화의 문화 대신 전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를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눈을 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모든 사람을 한 형제자매로 보아야만 한다. 이렇게 평화를 바라보는 것이 세계 종교들의 중심이요 평화와 비폭력의 영성이다.

비폭력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계의 폭력에 동조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것을 끝장내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비로소 전쟁과 폭력과 다른 불의에 저항하면서 인류 전체를 위한 평화와 정의와 비폭력을 키워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전망을 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우리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손에서는 무기들이 떨어져 나간다. 갑자기 창조 이래 감추어져 있던 위대한 진실이 드러난다. 우리 모두가 '이미' 서로 화해했고 하나님과도 화해를 했다는 진실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이다.

우리는 영원히 변화되었다. 바야흐로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특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적수들에게까지 우호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우리의 자매요 형제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와 사물을 이렇게 보는 것은, 생명의 신성함과 인간의 동등성에 눈을 열기만 하면 쉬운 일이다. 같은 시각으로 남은 생애를 계속 살아 가기가 훨씬 더 어렵다. 폭력의 문화는, 우리가 눈이 멀어서 잘 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수백 년간 이어 내려온 전쟁과 폭력의 세월은, 사람이 똑같은 하지만 모두가 똑같지는 않고, 그러므로 어떤 자들은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를 설득한다.(.....)

우리는 인류를 괴롭히는 폭력에 동조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계를 비폭력으로 변혁하는 일에 이바지함으로써, 평화를 일구는 성스러운 작업을 겸허하게 추진할 따름이다. 비록 사람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눈먼 문화에 에워싸여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결코 두 번 다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를 선택할 것이다.

(존 디어, <<살아 있는 평화>> 중에서)

인간은 거룩하다

새벽에 깨어나면 그대여
한 그릇의 물일량도 엇지르지 말라
물 속에는 사람의 하늘이 출렁이나니
새벽에 깨어나면 그대여 그대여
한 삼의 흙일량도 불구덩에 던지지 말라

오늘 우리는 달팽이라도 어루만지자
오늘 우리는 풀잎이라도 가슴에 담고 설레이자
풀여치, 지렁이, 장구벌레, 물새, 뜰복새, 물망울
땅 위에 살아 있는 것들은 얼마나 거룩하나
땅 위에 살아 있는 것들은 얼마나 거룩하나

오오, 새벽에 깨어나면 그대여
우리 이제 흐르는 강물에 발을 적시며
강 건너 마을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자
우리 이제 땅 위의 칼들을 녹슬게 하고
바람이 어찌하여 불어오는가를 귀 기울이자

오오, 새벽에 깨어나면 그대여
우리 이제 물과 흙 속에 뼈를 세우고
옛사람 잠든 산천에 찔레꽃이 피어나듯
물거품 같은 빛깔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하듯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라는 사실을 끝끝내 노래하자. (김준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최인환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영숙 한상익 정영선 이선림 김훈동 길민수 이인웅 김윤수 박옥경
김시영

월정헌금:

홍복선 백숙현 문홍일 조항신

감사헌금:

김애경 박영균 문금석 정종삼 김윤수 박옥경 김승현 최종원 허광식
정진경 조항범 오현정 박정숙 김정식 가족 무명3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심	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1월 정기 임원회가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2. **임원교육** :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의 몸 되신 교회의 봉사자로 임명받은 임원들에 대한 교육이 실시됩니다.
3. **수련회** :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중고등부가 포천 베데스다 수련원으로 수련회를 갑니다. 좋은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설날** : 다음 주일은 설날입니다. 오후 집회는 쉽니다. 가족들이 함께 하는 설날 아침 예배 순서지를 마련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계삭회가 26일(목) 오후 6시부터 광희문 교회에서 열립니다.
6. **담임목사** : 23일부터 25일까지 은혜교회에서 열리는 강화 북지방의 부흥사경회를 인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7. **신앙실천** : 소박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생명 사랑(생태계 보호와 평화)의 정신을 가족들에게 주지시키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 식당 봉사 : 안디옥 속

* 헌화 : 송임회 성도 (남편 1주기 추모)

* 새교우 소개

이동은 - 소속: 청년부, 인도자: 권채영

김정행 - 소속: 청년부, 인도자: 자진

안기덕 - 소속: 청년부, 인도자: 김대근

김세진 - 소속: 4남선교회, 인도자: 김대근

이영아 - 소속: 4여선교회, 인도자: 김대근

김선호 - 소속: 청년부, 인도자: 자진

정현창 - 소속: 4여선교회, 인도자: 고재중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